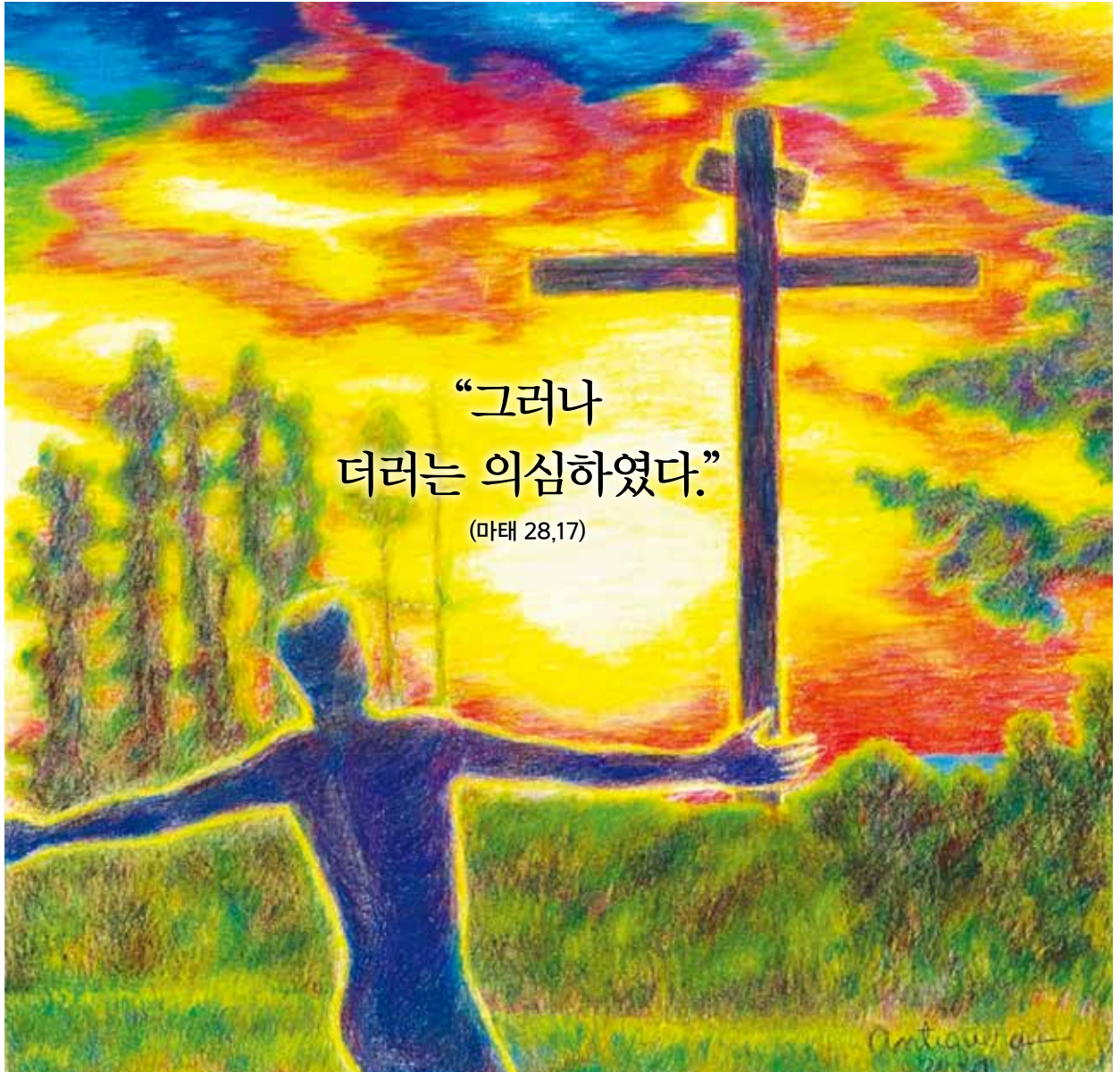


골롬반선교

2021년 봄호

vol.118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마태 28,17)

평신도선교사 30주년 | 한국 선교의 은총 | 성경과 데이트 | 생태적 회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1년 봄호 vol.118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마음을 여는 글 03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안인성 패트릭 신부

평신도선교사 04 사진으로 보는 평신도선교사 30년

08 한번도 꿈꾸어 보지 않았던 삶

장은열 골롬반 선교사

생태적 화심 11 우리 교회의 경칩? 안인성 패트릭 신부

한국 이야기 14 길 위의 이방인들 주다두 제노비오 신부

성경과 데이트 16 사복음서 산책 ① 마태오 복음서

정진만 안젤로 신부

지원사제 18 기다리는 행복 부재환 프란치스코 신부

신학원 20 움직이는 평화 이우빈 라우렌시오 신학생

한국 선교의 은총 22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하며

신오복 안토니오 신부

24 풍요로운 삶의 원천 고 미카엘 신부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표지 <부활> 안재선 제이슨 신부(골롬반회)
종이에 프리즈마 색연필, 26x36cm, 2021년

“부활을 주제로 이 그림을 준비할 때, 저는 제주 성 이시돌 목장에서 보았던 하늘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하늘에서 빛이 발산하여, 십자가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람의 몸과 영혼 속까지 깊이 퍼지면서 따뜻한, 경외와 감탄, 희망, 용기, 자유, 평화, 사랑이 와닿는 느낌으로 부활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여는 글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안인성 패트릭 신부 · 『골롬반선교』 편집장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28,16-20). 복음서 저자는 세상 끝까지 가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단 몇 문장에 담아냈지요. 그런데 복음서의 이 극적인 결말 속에 매우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7). 사도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고, 그분의 분부대로 그 산꼭대기에 와 있었다면, 어찌하여 그들 가운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 여러 단서가 마지막 몇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은 부분(탈출기)과 비슷하게 마태오 복음에서도 여러 산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암시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산 위에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고 정체성과 씨름하던 무리로서 사도들은 의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선택된 민족이라는 믿음 때문에, 과연 이 새로운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자문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의구심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28,18)라는 단순한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다가가다”는 마태오 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가가시고,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배신,

모욕, 고문 끝에 잔인하게 처형당한 후 부활하신 그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저마다 해야 할 사명을 알려 주시려고 사도들에게 “다가가” 이르셨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품었을 의심과 동요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뭐라고요? 우리가요?”

『골롬반선교』 봄호에서는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 30주년을 조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선교 생활 30년을 돌아보는 장은열 골롬반 선교사의 글을 신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진만 안젤로 신부가 쓴 복음서에 관한 특집 연재를 시작합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 미카엘 신부와 신오복 안토니오 신부가 한국 선교 활동을 통해 받은 은총을 나눴고, 주다두 신부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부재환 프란치스코 신부(제주교구 지원사제)는 파견을 준비하는 소감을 들려주었고, 이우빈 라우렌시오 신학생은 자신의 성소를 성찰하였습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회칙 『모든 형제들』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이는 이주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더 넓은 차원에 접근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어 결국 우리가 웅졸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 차별주의자가 되어 버릴 때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과 그러한 역량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41항).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가시어 사명을 들려주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복된 부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

사진으로 보는 평신도선교사 30년

골 롬반평신도선교사가 30주년을 맞아 회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90년 한국지부에서 필리핀으로 파견한 5명을 시작으로 각 나라 골롬반회가 파견한 평신도들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골롬반회의 한 축으로 발돋움한 골롬반평신도선교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착취당하는 지구와 연대하고, 하느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면서 교회에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삶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지부가 파견한 15개 팀 60명이 9개 나라에서 선교했고, 현재는 국내 2명을 포함 9명이 대만, 아일랜드, 영국, 필리핀,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 피지에서 선교하다 선종한 故 임연신 엘리사벳 선교

사를 특별히 기억합니다. 또한, 1994년에 아일랜드에서 파견된 이들부터 작년에 필리핀으로 귀국한 루다 이그발릭 선교사까지 스무 명이 한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여성, 남성, 미혼, 기혼, 가족으로 이루어진)들이 문화, 성별, 신념, 인종의 경계를 넘어 하느님의 선교 사업에 함께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희망합니다. 변방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골롬반평신도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복된 회년을 기념하며, 한국지부에서 파견하여 해외에서 활동한 선교사들과 한국으로 파견되어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얼굴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첫 평신도선교사들과 동료 선교사와 친구들(1990년대 초반, 필리핀)

K1



한국에서 활동한 골롬반평신도선교사

- 1994년 아일랜드 헬렌 패럴, 크리스 피스패트릭, 마이클 케니, 퍼릭 헐리, 클레어 케리 ①
- 1997년 필리핀 마도로 몬테론, 리레트 콜, 리나 바반토, 줄리엣 바카만테 ②
- 2002년 필리핀 시타 페탈베로, 크리스 심프론, 티나 카마초, 알린 빌라헤르모사 ③
- 2007년 필리핀 비올레타 빌라레이즈, 마이라 요안 ④
- 2009년 피지 마리아 부니비, 로세나 비아우 ⑤
- 2014년 필리핀 젠 놀라, 루다 이그발릭 ⑥

※자료와 사진 제공: 한국지부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 노혜인 안나 선교사



해외에서 활동한 골롬반평신도선교사

한국에서 파견했음을 나타내는 K에 파견 순서를 나타내는 고유 숫자, 파견 년도, 첫 선교지, 평신도선교사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활동하는 이들은 별표를 하였습니다.

- K1 1990년 필리핀 손영희 켈마, 신은경 가브리엘라, 이경숙 유스티나, ***장은열 골롬바**, 조하월 체리나
- K2 1992년 필리핀 김양석 모세, 오경숙 안나, 조숙희 마리아, 천현채 데레사
- K3 1994년 대만 김미영 디오니시아, 김용해 알비나, 이미숙 글라라, 조현자 레오나, 최인성 요셉
피지 김연한 아논시앗다, **故** 임연신 엘리사벳(1995년 피지에서 급성간염으로 선종)
- K4 1995년 필리핀 김인자 아가페, 김난주 도미질라, 김현숙 임마누엘라, 조분희 빅토리아
- K5 1996년 대만 김보영 마리아, 박필남 다비나, 정복동 아녜스
필리핀 강정희 캐롤리나, 신원정 미카엘라
- K6 1999년 일본 김순호 노엘라, 김윤경 아그리피나, 김현숙 마리안나, 이양금 바울라, 한은숙 제노비아
- K7 2000년 필리핀 ***손선영 가타리나**, 이영주 보나, ***이경자 크리스티나**, 황희순 요셉피나
- K8 2002년 아일랜드 송민숙 수산나, 이순주 마리아, 정선숙 소피아
- K9 2004년 일본 김정혜 로베르타, 이영주 에우프로시나, 임경숙 글라라
- K10 2007년 대만 김미경 안나, ***김정웅 요한 보스코**, ***이지영 크리스티나**, 인영오 어니스트
- K11 2008년 칠레 김규희 베로니카, 박정호 스테파노, 곽후신 실비아, ***조성근 제노비오**(2019년 사제서품, 골롬반회)
- K12 2009년 칠레 문병진 베드로
- K13 2011년 필리핀 ***김선희 안나**, ***노혜인 안나**, 박주리 요세피나 르루, 신현정 에우제니아
- K14 2014년 대만 김선희 마리아, ***배시현 소화 데레사**, 이수빈 마틸다
- K15 2015년 중국 ***서민아 마리안나**(2019년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입회), 김지현 요셉피나

2018년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국제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들



한번도 꿈꾸어 보지 않았던 삶

장은열 골롬바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1990년 6월 한국지부가 파견한 첫 번째 평신도선교사 팀으로 필리핀에 파견되어 18년 동안 선교하였다. 이어 홍콩 총본부 평신도선교사 중앙리더십 팀 3년, 미얀마에서 6년간 활동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이주민 사도직을 하고 있다. 선교 생활 30주년을 맞은 그는 2021년 5월 은퇴를 앞두고 있다.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으로 파견된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선교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3살 때 부모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고, 당

시 본당 신부님이 세례명을 골롬바로 정해 주셨다는데, 제가 골롬반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함 넘쳤던 친교의 현장 “사랑의집”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서울 신림동 달동네에서 “사랑의집”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골롬반 신부님들의 미사에 참석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어렵듯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자랐고, 성직자 중심적인 교회 분위기에 익숙한 저에게 그곳 풍경은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외국인 사제들이 우리말을 무척 잘하는 데다가 한국인 생활 방식대로 살고, 특히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 삶의 애환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생생한 신앙 체험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결혼보다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꽃길은 아니었지만 충만했던 삶

“한국 여성으로서, 평신도선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첫 선교지 파견을 앞두고 있었던 오리엔테이션 프



필리핀 마닐라 빠야따스 쓰레기 매립지 마을에서 살았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미얀마)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필리핀)

로그램에서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어느 수녀님이 해 주신 이 말씀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내내 저의 신앙 여정에 화두로 자리잡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그렇듯 당시 평신도로서,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은 꽃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제나 수도자처럼 분명한 이미지나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었기에 평신도의 삶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었고, 하얀 도화지에 조심스럽게 여백을 채워 나가야 하는 두렵고도 혼돈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나를 당황시켰던 질문 중 하나가 “평신도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였습니다.

평신도선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고향을 떠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 되어 그들과 친교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친구이자 언니, 배우는 학생이면서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때로는 불가피하게 리더로서 살게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거대한 쓰레기장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고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 교도소 수감자들, 끊임없

는 내전으로 터전을 잃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삶의 애환을 나누고 함께 친교를 이루며 평신도선교사로서 “나”라는 정체성을 성찰하며 살아온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복음화, 그리고 힘을 빼고 스며드는 삶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낯선 땅에 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일, 영어를 익히고, 가는 선교지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물론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어려웠던 것은 자신과의 힘겨루기였습니다. 선교사로 살기 전까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한 만큼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불리할 땐 숨거나 변명하는 제 모습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실패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지나치게 억압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지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잘해 보려고 너무 힘주고 내 의지대로 하려다 결과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을 빼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때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



함께 필리핀에 파견되었던 동료 선교사들(K1팀)과 양성 동반자였던 민후고 신부



첫 계약(1990년)

니다. 마치 빗물이 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듯,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온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강물이 되고,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듯이... 스며들고 모든 것과 어우러지며 함께 가면서 삶의 원천이 되듯이 말입니다.

은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은퇴를 앞두고 지난날을 돌아보니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드리게 됩니다. 골롬반회는 시대의 징표를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사제

중심이었던 선교회에 선교의 동반자로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연대하며 정의와 평화, 지구 지킴 연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선교에 저 또한 힘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가 골롬반회 선교에 고무되어 사제로서, 평신도로서 하느님 선교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동반해 주시는 후원회 가족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미얀마 카친 지역의 공동체 축제에 초대 받아 부족 전통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골롬반 선교

생태적 회심, 우리 교회의 경칩?

안인성 패트릭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선교잡지 『골롬반선교』 편집장이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1987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파견되어 서울, 전남 영광, 광주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생태와 환경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있었다. 세계관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 무의식적 틀로 써, 특정한 역사-문화-지리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리듬을 설명하고 형성한다. 그래서 자기 세계관이 당연히 보통이며 정상이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며, 그 보통과 정상을 다른 세계관에서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시골 본당에서 사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음력의 중요성, 문화와 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차차 주요 명절 외에도 24절기를 통해 음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칩, 얼어붙은 산천이 녹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다시 개골개골 우는 때에 농부들은 농사 지을 시기가 왔음을 알게 된다. 음력으로 표현되는 예측 가능한 자연의 리듬에는 즐거운 편안함이 있고, 우리 삶의 이치에 꼭 들어맞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음력설과 양력 신년 두 개의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에 놀랐다. 더구나 설날과 추석 명절이 부활절과 성탄 축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매우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내 고향 뉴질랜드에서는 성금요일이 공휴일이다.) 그때 나는 비록 문화의 다양성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관이 가진 타당성과 “정상 또는 보통”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하지만 이제는 뭔가 심각하게 빗나간 느낌이다. 지구 생태 위기가 심화되면서, 계절마다 나타났던 날씨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태풍과 장마가 더욱 심해진 것 같고 삼한 사온 겨울 날씨 패턴은 지속되는 한파로 바뀐 것도 같다.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길어진다.



生態的回心

개굴 개굴

아울러 개구리 울음소리는 갈수록 귀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홍수, 화재, 가뭄, 기근이 빈번해졌고, 숲이 사라지고 있으며,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점점 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도전하는 비극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 창조의 흠 없는 외투”는 산산이 조각나기 직전 너털너털한 상태로 해지고 있다(『찬미받으소서』 9항).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 신앙고백(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정)의 첫 번째 조항, “저는 만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늘”은 잘 믿어왔지만, 창조주가 주신 선물인 이 “땅”은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창조의 의의”를 고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교황들의 말을 찾아

보면, “환경 인식과 보호”에서 “생태적 회심”으로 표현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찬미받으소서』 2~6항). 언어 표현의 선택은 중요하며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경 인식과 보호 측면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으며, 보다 겸손하게 살고 낭비를 줄이며, 에너지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 회심 生態的回心”은 완전히 또 다른 것을 포함한다. 생태적 회심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히브리인들의 통찰을 재발견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 1~11장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성전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피조물을 “일구고 돌보는” 참된 사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다(창세 2,15; 『찬미받으소서』 66항).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느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함으로써 이러한 통찰을 강화할 수 있다.

하느님과 똑같이하려 하는 우리의 교만과 욕망(창세 3,5) 때문에 저지른 원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창세 3,10). 슬프게도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 즉 자연과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졌다. 이러한 창조와 죄악의 맥락에

서 볼 때, 생물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생태학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2천 년 동안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은 누구인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내 이웃이 누구이며, 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를 포함한 중요한 질문을 해왔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였다. 해답 중 일부는 아름답고 심오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 생태적 재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답은 현재 불충분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이 끝없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삶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활발한 주식 시장을 위해 자연 파괴를 계속해도 되는가?

약 12억 명 가톨릭 신자가 온 나라에 흩어져 살고,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여섯 명 중 한 명은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자. 이 거대한 공동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생태적 회심으로 나아감에, 하느님의 선물인 이 지구의 생태 다양성을 보호하는 실천을 한다면...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 8,19). 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이 각성, 이 깨어남을 나는 “우리 교회의 경칩”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마 그것을 위해 개구리도 개굴개굴 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卐



* 캘리그래피: 부재환 프란치스코 신부

본문에 인용된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으로 환경 회칙, 생태 회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길 위의 이방인들

주다두 제노비오 신부 /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1998년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 한국으로 파견되어 광주대교구 목포 대성동, 서울대교구 대방동·역삼동 본당에서 사목했다. 2015년에 필리핀으로 가서 활동하다가 2012년 돌아와서 2015년부터 한국지부 신학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충남 지역 필리핀 유학생들과 다문화 워크숍을 했을 때. 왼쪽 끝 뒤에서 두 번째는 이주민사목을 하는 대전교구 박찬인 신부(전 골롬반회 지원사제)다.

신학원 부원장이라는 책무도 막중하지만 그 와중에 이민자 사목에 참여하는 특전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로 대전교구에 가서 했던 이민자 사목은 제게 신학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밖에서 선교사이자 사제로서 한국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민자들, 가톨릭교회의 응답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1980년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는 40,519명으로 당시 한국 총인구인 3천8백만 명의 약 0.1퍼센

트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가 2,524,656명, 한국 총인구의 약 5퍼센트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은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다양성을 부여하는 집단임에도 자주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은 한국 가톨릭교회는 주교들을 필두로 사회 내 증가하는 인구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했습니다. 각 교구는 이민자 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이주민들의 일터

에서 발생하는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의 잠재력을 포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주민 센터들이 해온 일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레위기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19,33-34).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모이세」는 대전교구의 첫 번째 이민자 센터로 2003년에 개소하여 현재 두 개의 센터를 대전시와 천안시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이방인

오랜 시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가톨릭 공동체의 지원, 한국어와 문화를 정식으로 공부할 기회 등 제게 주어진 많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이방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어를 습득하고, 사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정도로 한국에 잘 적응하여 이곳이 집처럼 편안하지만, 결코 한국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 달라고 대전교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주저 없이 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께서 콜로새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타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콜로 3,11).

이방인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얼마 전에 반포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프란치



스코 교황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시민의 소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이웃으로서 “다른 이들의 약함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배척의 사회가 건설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공동선”을 이루는 자매와 형제들의 공동체를 제시하셨습니다(67항). 저는 이민자 센터 활동을 통해 ‘이방인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교구의 이민자 센터들과 협력할 수 있어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부 국가에서, 이민 현상은 자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고 이용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폐쇄적일 때 이는 “외국인 혐오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타고난 존엄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결정과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들을 가치와 중요성과 인간성을 덜 갖춘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각하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특정 정치적 선호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확신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출신, 인종, 종교와는 무관한 모든 인간 존재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 그리고 최고의 법인 형제적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확신입니다”(『모든 형제들』 39항). ✠

사복음서 산책 ①

마태오 복음서

경계에서 두 세상을 품다



정진만 안젤로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 독일 보훔 대학교에서 <마태오복음>을 주제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서 <공관복음>, <가톨릭 서간>, <성경 희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현대 모든 성경본과 고대의 중요한 필사본에서 마태오 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마르코, 루카, 요한)에 앞서 위치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이지만, 마태오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첫 자리에서 '예수 이야기'를 전하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경적 배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전인 구약성경이 신약성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가 선포한 하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1-17 참조).

위기 속 마태오 공동체

마태오 복음서의 (1차) 독자는 팔레스티나 지방을 떠나 (적어도 복음서 저술 당시에는) 시리아에 정주한 지역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스승이자 주님이었습니다. 마태오 공동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였지만, 반면 바리사이 전통에 의존하던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모세의 율법, 곧 토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두 공동체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85년(혹은 90년), 유다교 공동체 지도자인 랍비들이 얌니아(이스라엘 중부 야브네)에 모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신례에 '비르카드 하-



두치오(Duccio) 작 <갈릴래아 산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1308-1311년 | 목판에 템페라 | 36.4x47.6cm
이탈리아 시에나 대성당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 소장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스)

미님', 곧 '이단에 대한 저주'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갈등은 정점에 달하였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고, 회당으로부터 분리는 핍박과 멸시를 수반하였습니다(5,11-12,44; 10,17-23; 23,34-35 참조).

위기에 처한 마태오 공동체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는 유다 전통을 이어받아(예를 들어, 율법 준수: 5,17-18)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마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스)

<성 마태오 복음서> | 린디스파른 복음서 25b쪽 | 34x25cm
영국 대영 박물관 소장
린디스파른 복음서는 700년경 영국 린디스파른 섬에서 불가타 성서의 복음서 수사본을 복사한 것인데, 아름답게 장식한 첫 글자들과 뛰어난 삽화와 장식 도안으로 유명한 필사본이다.

지막 지상 명령인 이방인 선교(28,18-20)를 수행하여 '예수의 제자', 곧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고민과 선택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여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배타주의와 보편주의

마태오 복음서의 저자는 공동체의 교사이자 지도자로서 딜레마에 빠진 공동체 구성원들을 도와주기

『골롬반선교』는 우리 일상에서 복음을 더 깊이 맛들이기 위하여 <정진만 신부의 사복음서 산책>을 연재합니다. 복음이 탄생한 시대 배경과 복음 사가들의 집필 의도 등을 살펴 보며,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함께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위하여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태오 공동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이방인을 향해 있었고, 공동체의 이러한 관심은 복음서 저자에게 복음서의 내용과 구성에 중요한 집필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 ①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견된 하느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며(15,24 참조 10,5-6,23), 율법의 완성자이자 해석자로서 율법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는 스승(5,17-48)입니다.
- ② 마태오 복음서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맞추어 있지만, 이방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사가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에서 이방 민족 출신 여인이 언급되었고(1,2-17),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박사들과(2,1-11) 예수로부터 믿음을 청송받은 백인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8,5-13). 최종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능성은 부활하신 임마누엘 예수의 파견 명령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28,19-20).

새것과 옛것(13,52)

마태오 복음서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라는 두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율법 비판적 전승과 율법 중심적 전승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9,17). 이 기록은 율법의 지속적 유효성을 존중하면서 복음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강조하는 마태오 복음사가의 의도에 부합합니다.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곧 예수님에 의해 해석되는 율법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오 복음서의 구상은 복음사가의 '자기 묘사'로 간주되는 마태오 복음 13장 52절에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

기다리는 행복

부재환 프란치스코 신부

제주교구의 첫 번째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4월 초 남미에 파견되어 선교할 예정이다.



보좌신부 4년 차를 마칠 무렵, 저는 스스로 타성에 젖어 간다고 느끼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년 11월 성 골롬반 축일에 제주교구 전체 사제들이 골롬반 사제관에 모이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당시 지부장 김종근 신부님이 인사말에서 지원사제 제도를 소개하며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주교구도 이렇게 신부님들이 많아졌으니 골롬반회에 지원해 주십시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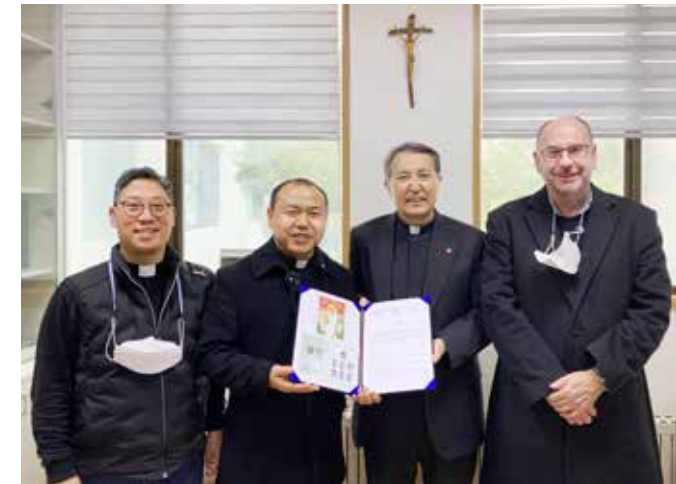
구장님께서 지원하는 사제가 있으면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 멀리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렸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캄보디아 선교 실습 때 담아 두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부딪쳐 보고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 교구장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주교님, 우리 교구가 골롬반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큰 도움을 주었던 선교회가 교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우리 교구도 구체적인 응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있었을 때부터 줄곧 선교의 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제 뜻을 강우일 주교님은 흔쾌히 받아 주셨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2019년)은 장담할 수 없으나 2020년에는 반드시 보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기도하고 식별하며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1년 뒤, 저는 다시 주교님을 찾았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없고, 오히려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주교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답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교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앞으로 저를 시작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사제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기쁘게 보내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골롬반회와 정식으로 지원사제 준비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바로 해외 선교사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영어 공부, 영어 미사 연습을 꾸준히 해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사리 C.P.E(임상 사목 교육)까지 준비 과정을 무사히 다 마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악화로 계획대로였다면 한국을 떠났을 7월 말까지도 발령이 보류되었고, 교구장님께 양해를 구하여 하반기에도 서울 골롬반 본부에 머물면서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어느 나라로 가는지 발령조차 나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언제 가느냐는 지인들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불만과 막막함을 토로하는 것이 싫어서 되도록 연락도 만 남도 피했습니다. 그런 고립된 생활로 때론 모진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12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새 교구장 문창우 주교님은 12월 중순까지 발령이 나지 않으면 저를 복귀시켜 내년 제주교구 인사에 포함한다는 공문을 골롬반 총본부로 보내셨습니다. 복귀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 상자를 챙기고 있었는데 복귀 기한일을 나흘 앞두고 드디어 희망했던 남미지부 발령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었으나 넉 달 후인 2021년 4월 1일자로 발령이 났고, 게다가 백신 접종을 하기 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4월까지 또 어떻게 더 기다리라는 말인가, 백신을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데 발령일에 맞춰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교구장님과 전화 면담을 했고, 결국 저의 선택은 ‘순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골롬반회 지원사제 담당 남승원 신부, 필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 한국지부장 임영준 신부

오래 지체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저를 붙잡고 보내려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오묘한 섭리에, 그리고 저와 일면식은 없지만 당신께서 도구로 쓰시는 골롬반 공동체의 장상에 게 순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당신이 부르신 바로 그 길로 오게 하시려 저를 이끄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명’과 ‘인내’의 덕입니다.

서울 골롬반 본부 바로 이곳이 나의 첫 선교지이며 이미 선교는 시작되었다고 받아들이니 참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제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기다리는 행복’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 내 자신과의 만남을 감사하며, 오늘도 파견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성무일도 중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을 나눕니다.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라.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 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시편 138,8). ✠

움직이는 평화

이우빈 라우렌시오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대전교구 출신으로 2019년에 입회하여 현재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신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해 부활절,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원 공동체는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신학원장 오기백 다니엘 신부님은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그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자 신학생들에게 현장 미사를 제안하셨습니다. 기타를 만드는 회사인 콜트-폴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드린 미사였습니다. 그들은 경영상 이유라며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고, 1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복직을 위해 곳곳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저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에 콜트 기타를 연주하는 친구에게서 정황을 듣기는 했지만, 그때 저의 반응은 ‘아 그래?’ 뿐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던 저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저는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서 많은 일을 겪어 왔던 분들의 눈물 얼룩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저 같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마주했으며, 때로는 그만하자는 만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 분들 앞에서 저는, 부끄러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거나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저는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 연주곡을 즐겨 듣습니다. 클래식 기타, 통기타, 전자 기타 등등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서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 이맘때, 평소에 제가 듣던 음악 속 기타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체험은 제 삶에 큰 의미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움에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하느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를 마음속으로 연신 되뇌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그 부활 미사는 십자가 고통은 외면한 채, 찬란한 빛에 쌓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찾아 따르고자 했던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정신이 바짝 든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부활 대축일 미사 이튿날, 4,464일 만에 기적적으로 노사간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신학원장 신부님께 소식을 전해 듣고, 굉장히 놀랐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때와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 주셨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세상의 냉소와 조롱을 견디면서 정의를 위해 행동하던 분들이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 주셨던 기쁘고 행복했던 그 기억이 어제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이 소중한 체험은 다른 문화의 선교지로 파견되어 살아갈 날을 고대하게 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사는 저를 꿈꾸며 기도하게 합니다. 그날 미사의 끝에서 해고 노동자인 한 형제님이 낭송했던 이해인 수녀님의 시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책상 위 작은 액자 속, 저를 아껴 주시는 어느 분이 손수 써 준 시였습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하느님의 정의에 등 돌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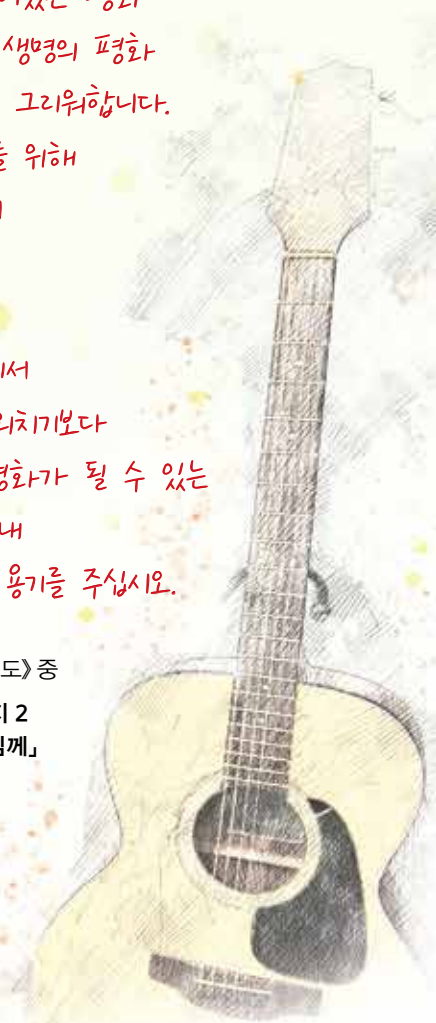
오늘 하루, 아름다운 선율의 기타 연주곡과 함께 이 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
평화는 어디에 숨은 걸까요?
시대는 불안하고 삶은 공허하고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평화이신 예수님
고통 중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평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평화
움직이는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 마다에서
임으로 평화를 외치기보다
존재 자체로 평화가 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와 인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해인 시집 《작은 기도》 중
「예수님께 쓰는 편지 2
- 평화이신 예수님께」



*『골롬반선교』에 아름다운 시를 신게 허락해 주신 올리베라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하며



신오복 안토니오 신부 /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에서 1957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도착했다. 원주교구 정선·학생동·도계, 춘천교구 교동·흥천·청평, 서울대교구 목동·신정동·도림동, 수원교구 원곡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한국지부장과 골롬반회 총장을 역임했다. 1992년 골롬반 후원회 초석을 세우고, 10여 년간 선교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2017년 아일랜드로 귀국할 때까지 일산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지금은 아일랜드 지부가 있는 달간파크에서 지내고 있다.



서울대교구 도림동성당에서 사목할 때(1990년대 초)

“우리가 들은 것은 잊고, 본 것은 기억하며, 경험한 것은 이해하게 된다.”

언젠가 들었던 저 말은, 한국에서 오십 년 가까이 선교사로 살다가 2017년 6월 은퇴하면서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온 저에게 무척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경험한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쁨, 희망, 성공, 때로는 실패를 맛보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하느님께 매우 감사합니

다. 그러면서 제가 뿌리 깊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문화, 언어, 민족은 달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해와 사랑, 지지, 공감,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료 선교사들, 제가 살았던 여러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친 사람들입니다. 본당사목을 하면서, 골롬반

후원회 사도직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년 동안에 만난 많은 분들이 제게 건넨 환영과 이해, 지지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공식적인 사목을 할 때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는 자리처럼 격식에 덜 얽매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모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1958년, 함께 화물선을 타고 한국에 도착한 동료 선교사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수사들과 항구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특히 그런 순간에 제가 외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십 년은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따르거나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사목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을 겪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발휘하는 탁월한 회복력은 늘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자연재해와 인재에 맞닥뜨렸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나와 다른 가치관과 전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험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더 크게 의식하도록 해줬습니다. 한국의 산이든 제 고향의 푸른 들과 숲이든 하느님의 피조물에는 모두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기 마련이라 그런가 봅니다. ※편집자 주: 신오복 신부는 50~60년대에 강원도에서 오래 사목했다.

아일랜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선교했던 골롬반 수녀들의 장례미사에 참석하러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모원(아일랜드 마호르 모어에 위치)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묘지를 거닐며 묘비를 보니 그곳에 잠든 여성들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간호사로서 헌신했던 바가 참으로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어려웠던 시기에 그들은 고통받고 가난에 허덕이며 아파한 수많은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의 형제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전라남도 광주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수도회의 한국 활동 60주년 기념으로 아일랜드 더블린 본부에서 드린 감사 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저와 수도회의 인연은 1958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도회에서 한국으로 처음 파견한 다섯 명의 수사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올랐을 때, 골롬반 선교사 몇 명이 그들과 19일간 항해를 함께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교회와 세계가 수많은 문제와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놀라움과 신비로움, 기쁨을 느끼며, 아름다움에 고요히 감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그런가 봅니다. ✠

한국에서 선교했던故 엔다 수녀의 묘



2021년 봄호

풍요로운 삶의 원천

고 미카엘 신부 /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출생으로 1965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도착하였다. 광주대교구 함평·목포 산정동·노안·장흥·광주 호남동, 제주교구 한림, 안동교구 영주 휴천동, 원주교구 제천 소부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이후, 호주·뉴질랜드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였다.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요양원 지도 신부와 선교 연구 활동을 하며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다.



풍요로운 문화와 종교 유산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지닌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이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나눌 것이다. 그런 다음, 때가 되면 하던 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건너갈 것이다.”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 짧은 문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책임은 신부를 기다리는 본당으로 가서 사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간 펼쳐진 수많은 축복은 선교사제로서 저의 만년을 풍요롭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저에게 어느 상황에서 서든 선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겸손 가득한 음성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 안동교구장이었던 두봉 주교께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엿볼 수 있는 징표들을 일상 속에서 계속 찾아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원주교구故 지학순 주교께서는 가톨릭교회가 오늘날 사회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1965년에 서품을 받고,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저는 인생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때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본 수련을 갖 끝낸 일반의사와 같은 상태였지요. 한국으로 파견되면 한국어뿐 아니라,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배운 다음에는 본당 신부로 파견되었습니다. 광주대교구, 안동교구, 그리고 원주교구에서 저를 환대하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설령 그곳이 시골 외딴 마을이라도 가서 사람들을 동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적, 영적, 언어적 영역에 들어가면 신성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들 것이라는 확신이 저를 그곳을 향해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제 막연한 젊음이 특유의 이상주의는 그 신성한 만남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과 기쁨, 그리고 상실과 슬픔을 나누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언제나 마음 넓은 지도자들이 있어 제가 성체성사를 행하거나, 이웃들을 찾아갈 때마다 저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전 받고, 고심할 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넓고 통합적인 세계관이 저의 기도와 강론에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더 이상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해 사람들의 가슴에 함께 도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저는 정의 평화와 생애를 위한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런 목표에 가톨릭교회가 더욱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였고,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세계와 만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어)에서 마오리족의 영성을 공부하였고, 오세아니아 지부의 행정과 사제들을 위한 피정 지도 등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노력의 배

경과 다문화적 시각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물을 때면 저는 일찍이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흐릿해지는 먼 옛날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질 때면 옛날 사진들을 꺼내 놓고 제게 환대를 베풀고 공감해 주고, 동행해 준 이들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제 만년의 방향을 만들어 주었고, 제 안에 선교 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감사를 담아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서 고 미카엘 신부



경상북도 영주에서 사목할 때 고 미카엘 신부 맨 왼쪽은 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1970년대 중후반)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 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1년 4월 ~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장 소	문 의
서울	9일	7일	4일	2일	6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13일	11일	8일	13일	-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4일	12일	9일	14일	-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9일	14일	11일	9일	13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3일	28일	25일	23일	27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7일	25일	22일	27일	24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8일	26일	23일	28일	25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9일	27일	24일	29일	26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30일	28일	25일	30일	27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	-	10일	-	-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1일	19일	16일	21일	18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8일	-	20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20일	-	15일	-	17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서울 4월 십자가의 길과 5월 야외미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인천, 원주 8월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검색하시면 후원회원을 위한 온라인 미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정기적인 미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평화의 하느님, 미얀마에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계 가톨릭교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존엄한 생명이 짓밟히는 데 아픔을 같이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골롬반회 선교사들 또한 기도와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골롬반회는 1936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얀마 북부 미치나에서 교구를 설립하고 활동하였으나,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재가 가해졌고, 무력에 선교사들이 희생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2015년에 다시 들어간 골롬반 선교사들이 현재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날 쏘세요.” 중무장한 경찰 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수녀

구화 신부 한국지부 발령

남미 페루에서 선교하였던 골롬반회 구화 루까노 신부가 한국지부로 발령을 받고, 지난 2월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구화 신부는 2012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페루로 파견되어 수도 리마 북부 외곽 지역인 까라바이요 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사목자들과 신자들, 이웃 주민들과 유대감이 깊은 곳이었는데, 정든 곳을 떠난 아쉬운 마음이 한국에서 펼쳐질 선교 여정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배시현 평신도선교사 장기선교사 서약

배시현 소화 데레사 선교사의 “장기 선교사” 서약식 미사가 12월 21일, 민 디오니시오 신부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2014년에 대만으로 파견되어 원주민들과 살았던 배시현 선교사는 계속해서 골롬반회 선교사로 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약식 후 1월, 대만으로 돌아가 현재는 신주교구에서 청소년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함께 파견되었던 김선희 마리아, 이수빈 마틸다 선교사는 임기를 마치고 한국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하느님 사랑을 나누었던 세 분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신학원 소식



첫 서약을 한 성요셉 요셉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원(원장 오기백 다니엘 신부)은 3월 6일 한국지부장 임영준 에이몬 신부 주례로 개강 미사를 봉헌하고 새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성요셉 요셉 신학생은 첫 서약을 하고, 본회 유가회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교구 출신으로 2016년에 입학한 그는 신학교 6학년을 마친 후, 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FMA(해외 선교 실습)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 입회식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홍은동 본당 출신 손형일 야고보 신학생은 올해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 선교사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뚝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전에는 부원장 주다두 제노비오 신부 주례로 성당 문성화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신학원 성당 입구 문에 안재선 제이스 신부가 8개월에 걸쳐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화를 그려 차가운 철문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골롬반회에 입회한 손형일 야고보 신학생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함께하게 된 최동민 신부

대전교구 최동민 파스칼 신부가 3월부터 골롬반회 지원사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월 29일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와 골롬반회는 지원사제 준비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 신부는 앞으로 서울 한국지부 본부에서 골롬반 선교사들과 지내면서, 외국어와 공동체 문화, 선교사 교육 등 선교에 필요한 것을 익히게 되며, 현재는 CPE(임상 사목 교육)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에서는 꾸준히 골롬반회에 지원사제를 보냈으며, 최동민 신부가 여섯 번째로 지원했습니다.



천노엘 신부 KBS, 안재선·피터동 신부 tvN 방송 출연

12월 25일, 발달장애인들의 벗인 천노엘 신부(사진)의 이야기를 담은 KBS 1TV 성탄특집 다큐멘터리 <노엘의 선물>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천노엘 신부와 엠마우스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모습이 성탄 밤,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방송은 KB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안재선 제이스 신부와 동 베드로 신부가 tvN <윤스테이>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채널(유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KBS 홈페이지

故 케빈 오록 신부, 한국문학번역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기리암 신부



케빈 오록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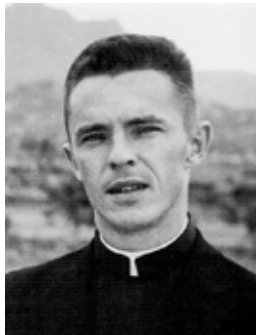
한국문학번역원은 故 케빈 오록 신부(작년 10월 선종)에게 2020년 한국문학번역대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록 신부는 외국인 최초로 국내에서 한국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수천 편의 한국 문학을 번역하여 세계에 알렸습니다. 12월 9일 열린 시상식에서 기리암 신부가 동료 선교사이자 오랜 친구로서 대리 수상하였습니다. “오록 신부님께서 이 상을 직접 받았다면, 매우 고맙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며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노력을 많이 하신 선교사였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 수상 소감에서



왕 토마스 신부 선종

왕 토마스(Thomas Walsh) 신부가 2021년 3월 17일 아침(현지 시간) 미국 성 골롬반 요양원에서 향년 88세로 선종하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서 1933년에 태어난 그는 1957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이어 원주교구 형성 본당(당시 춘천교구)에서 사목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군 군중 사제로 20년 동안 활동한 후 1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1991년에 남미 칠레로 파견되어 선교했고, 2004년 은퇴한 뒤 미국 골롬반 요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충실한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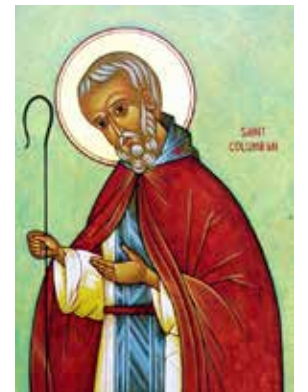
2021년 사제 성소 모임 안내

선교사제를 지망하는 성소자들의 모임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 모여 선교사와 만남, 피정, 강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함께 성소를 식별하는 자리입니다. 주위에 선교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나 혼자 고

민하는 청년이 있다면 골롬반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시오.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만 19세~35세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소모임 **참석 전, 사전에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924-3048 ✉ korvocation@columban.or.kr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vocation/
 📺 카카오톡 채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국” 검색
 담당: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서울 매월 첫째 주일 9시
 한국지부 본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광주 매월 둘째 토요일 4시
 골롬반 선교회관 (광주광역시 서구 월림신기길 152)
제주 매월 넷째 토요일 4시
 골롬반 사제관 (제주도 제주시 용담로 7길 28)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SNS로

초대합니다!

새해를 맞아 홈페이지를 새 단장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일시후원과 CMS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하며, 선교 정보와 만나고 싶은 선교사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러 주시고, SNS 친구가 되어 주변 이웃과 젊은이들을 골롬반회 선교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국지부 www.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www.columbanmission.org

유튜브

선교사들의 활동, 인터뷰, 강론, 해외선교 자료 등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골롬반TV**

카카오톡

Ch 카카오톡 채널 추가

- 1 카카오톡 실행
- 2 검색창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력
- 3 **Ch** + 채널 추가 후 확인 누르기
 * 또는 QR코드 촬영 후 채널 추가 누르기



페이스북

한국지부 www.facebook.com/columbankorea
 평신도선교사 www.facebook.com/LMcoordinator

인스타그램

한국지부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평신도선교사 www.instagram.com/clmkorea
 성소국 www.instagram.com/korvocation

“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게 불던 날, 어선을 축복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부둣가에 도착했더니, 먼 바다 위에 떠 있는 어선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고,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마침 그날 복음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서 빠질 뻔한 이야기였어요. 무사히 돌아온 저를 본 신자들이
‘베드로 신부가 태풍 속을 걸었다!’며 저렇게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광규 대철 베드로 신부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엠타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자원사제 문의 남승원 신부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